

일본 에도시대 국학파와 황국사상의 등장 정한론의 대두로 이어지는 국가의식과 세 계관 변화



1 개요

일본에서는 1850년대 개항 이전 약 100년간의 시기에 걸쳐 자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졌다. 자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황국사상이 확산되며 천황의 존재감도 커졌다. 일본이 '제국'으로서 갖는 세계적 위상 또한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식은 학파와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공유되어 갔다.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조선은 열등하고 약소한 존재로 자리매김되었다. 정한론(征韓論)이 대두하는 배경이다.

2 통신사 외교의 축소

일본에 파견되는 조선 조정의 통신사는 쓰시마를 거쳐서 일본 본토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마지막 통신사인 1811년 통신사의 방문지는 쓰시마에 한정되었다. 통신사의 일본 본토 방문은 그 직전 1763-1764년의 통신사가 마지막이다. 비록 부산의 조선 관아와 쓰시마 영주 사이의 사절 왕래는 계속되었으나, 이미 개항보다 앞선 거의 100년간의 시대에 걸쳐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간 교류는 이전 시대보다 축소되었던 것이다.

통신사의 일본 내 체재비용은 일본이 부담했다. 1811년 통신사의 방문지가 쓰시마에 한정된 것은 일본의 제안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기근과 재해 등으로 인한 일본 측의 재정 악화가 큰 이유였다. 그러나 통신사 외교의 축소는 일본 사회의 국가의식과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그와 맞물린 조선관의 변화와도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3 국학의 발전과 천황의 부상

1748년 이후 통신사의 사행록에서는 일본 사회 일각의 이른바 존왕(尊王) 사상이 지적되기 시작한다. 생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던 학자 이익(李瀾)도 『일본충의(日本忠義)』에서 막부(幕府) 토벌과 왕정복고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익은 주자학자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9~1682) 학파의 강렬한 명분론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자료

바로 이 시기의 일본에서는 야마자키 안사이의 신도(神道) 이론을 계승한 다케노우치 시키부(竹内式部, 1712~1768)의 문하에 교토의 젊은 공가(公家,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조정 귀족)들이 다수 입문하고 있었다. 시키부는 천황의 권위가 막부에 억눌린 상황을 한탄하며 천황이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군주로서 덕을 갖추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많은 공가들이 감화된 듯하다. 시키부 문하의 공가들은 고대의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 중 천황가 조상신의 개국신화가 서술된 부분을 당시의 모모조노 천황(桃園天皇)에게 강의하는데, 이를 둘러싼 조정 내의 대립으로 1758년 이후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처벌받고 말았다. 이른바 호레키 사건(寶曆事件)이다.

이와 비슷한 1752년에서 1757년 사이에는, 이세(伊勢, 오늘날의 미에현)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가 교토에서 의술과 학문을 익히고 있었다. 일본 고전을 통해 일본의 고유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인 국학(國學)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는 인물이다. 노리나가는 교토에 체류하며 일본의 고전에 관심이 깊어졌고 조정에 대한 문화적인 경외감과 동경심을 품게 되었다.

1750년대는 기존에 주로 사본으로 유통되던 국학자들의 저술이 출판 매체를 통해 널리 보급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의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또한 국학자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의 저작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가모노 마부치는 1763년 이세 신궁(伊勢神宮) 참배를 가면서 노리나가가 살던 마쓰사카(松坂)에 묵게 되는데, 이때 노리나가는 마부치와 면담하고 입문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764년에 고대 천황가의 신화를 전하는 『고사기(古事記)』의 주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모두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 본토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무렵의 일이다.

이후 노리나가는 본업인 의사 일과 『고사기』를 비롯한 일본 고전 연구, 그리고 고전을 배우려는 제자의 지도를 병행하며 학문적 명성을 쌓아갔다. 1780년대 이후 노리나가의 문하생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1801년 사망 당시에는 500명 남짓에 도달하였다. 『고사기』 주석서인 대작 『고사기전(古事記傳)』을 완성한 것은 1798년이다.

천황 주변에서도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에 관심을 갖는 이가 생겼다. 당시의 고카쿠 천황(光格天皇, 재위 1780~1817) 역시 친형 묘호인노미야 신닌 법친왕(妙法院宮 眞仁法親王)을 통해 노리나가의 역작 『고사기전』을 접하게 된다. 노리나가는 만년인 1801년에 교토를 방문하여 일본 고전을 강의하는데 여기에는 공가들도 여럿 참석하였다.

4 황국사상의 보급과 조선관

18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까지 약 200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자국의 호칭으로서 ‘황국(皇國)’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황국’이라는 개념의 함의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일정한 국가의식이 투영된 용어이다. 역성혁명과 이민족 지배가 반복되는 중국 등의 외국과 달리 단절 없이 이어져 온 천황가를 중심으로 번영하는 나라라는 의식이다.

에도시대 말기 이후 황국 의식은 대외적 위기감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8세기의 일본은 대체로 안정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문화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만족과 긍지도 강해졌다. 그러한 와중에 가노 노마부치 등의 국학자들이 일본을 ‘황국’이라 칭하기 시작하였다. 노리나가 또한 『고사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황국 의식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늦어도 1771년부터 ‘황국’이라는 말을 썼으며 1780년대 이후의 원고에서 이 표현은 완전히 정착했다고 분석된다.

1790년대 이후 ‘황국’은 국학, 유학(儒學), 그리고 난학(蘭學, 일본과 통상 관계가 있던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문화를 중심으로 서양 문명을 연구하는 학문 조류) 등 학문 분야 및 정치적 입장 차이와 관계없이 널리 쓰이는 호칭이 되었다. 일본의 우수성을 부르짖는 국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황국’이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유례없는 나라이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라는 의식은 당시의 일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국사상 속에서 조선의 위치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노리나가는 1778년에 집필하고 1796년에 간행한 『어용개언(馭戎概言)』에서 『일본서기』의 서술에 입각하여 진구 황후(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이래 한반도 국가들이 일본에 복종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문화와 제도의 기원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을 강조했던 도 데이칸(藤貞幹)의 주장에 격렬히 반발하며, 데이칸을 ‘미친 사람’이라 단정 짓는 반론서 『검광인(鉗狂人)』을 집필하기도 했다. 중국 및 한반도에 대한 ‘황국’의 관념적인 우월성을 부르짖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일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조선보다 우월했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졌던 것이다.

5 ‘제국’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조선관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드는 유일무이한 국가로서의 ‘황국’의식이 보급되는 한편으로, 세계의 다른 강국들과 어깨를 견주는 ‘제국’으로서의 자국의식도 18세기 말 이후 등장한다.

‘제국’이라는 표현은 옛 중국 서적에도 용례가 없지 않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은 난학에 조예가 깊던 후쿠치야마(福知山)의 영주 구쓰키 마사쓰나(朽木昌綱)가 1789년의 『태서여지도설(泰西輿地圖說)』에서 네덜란드어 ‘케이젤레이크(keijzerrijk)’의 번역어로 쓴 것이 계기라고 전해진다. 제국과 왕국이 구분되는 유럽의 정치 질서에 관한 정보를 번역하면서 등장한 개념인 것이다.

한편 16세기 후반부터 일본에 왕래한 유럽인들은 저술에서 일본을 언급하거나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일본을 ‘제국(imperii)’, 일본의 군주를 ‘황제(kaiser)’라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 영주들 위에 군림하는 쇼군(將

軍)과 천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 질서를 유럽의 '제국'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인들의 일본관을 일본 측에서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18세기 후반부터이다. 1792년에 러시아가 일본에 통상을 요구하며 일본인 표류민을 송환하는데, 난학자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는 그 표류민이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인들은 세계에 러시아, 독일(신성 로마 제국), 투르크, 청, 페르시아, 무굴 제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일곱 개의 제국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다(『북차문략(北槎聞略)』). 이후 세계지리 정보를 서술하며 일본을 '제국'으로 분류하고 그 위상을 강조하려는 의식이 난학자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도쿠가와 쇼군가의 종친인 미토(水戸) 영주 가문의 학자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는 1825년의 『신론(新論)』에서 당시 세계에 '무굴, 페르시아, 투르크, 게르마니아,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칠웅(七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신론』「형세(形勢)」). 앞서 언급한 가쓰라가와 호슈의 '7제국'과 같다. 또한 당시 세계에서 기독교 및 이슬람에 물들지 않은 나라가 일본과 중국밖에 없다고 하며 '조선과 베트남 등의 나라도 이들 종교에 물들지 않았으나 이들 나라는 약소해서 거론할 만하지 않다'고 하였다(『신론』「형세(形勢)」). 강력한 '제국'들이 할거하고 각축하는 세계 속에서 조선은 진지하게 논할 가치가 없는 약소국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6 일본의 세계인식 변화와 정한론의 대두

『신론』이나 국학자의 저작은 에도시대 말기 조슈(長州)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쇼인은 조선이 원래 일본의 속국이었으나 지금은 거만해졌으며, 조선을 문책하여 옛날처럼 조공을 바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유수록(幽囚錄)』).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훗날 메이지 정부를 이끄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조슈의 청년들에게 이어진다고 평가된다.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발단이 된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은 과격한 정한론자들의 정권이 아니라, 정변을 통해 과격한 정한론자들이 실각한 이후의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정한론 및 그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그 이전 100년 동안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항 이전 100년간의 역사가 그 이후의 100년을 전적으로 좌우했을 리는 없다. 19세기 중반 당시 조선과 일본의 사람들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다만 수많은 선택지를 펼쳐 들던 당시 일본인들의 주류적 세계관이 형성된 배경과 관련하여, 그 이전 100년간 일본에서 전개된 역사에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